베트남 섬유 산업 -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의 지위 향상

중국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데 따른 세계적인 경계나 인민 위엔화의 절상, 연안부의 인건비 상승,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서 베트남의 지위가 착실하게 오르고 있다. 중국과 비교하면 지리적인 불리나 생산되는 원재료의 빈약 등의 약점을 여전히 안고 있기는 하나 정치적ㆍ경제적 안정성이나 저렴하면서도 질이 좋고 풍부한 노동력, 구미 어패럴 기업의 전략적 생산 거점 선정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2006년은 WTO 가맹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 섬유품 수출의 개시는 순조

2006년은 미국으로의 수출을 위시한 섬유품 수출이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2006년 1~2월의 봉제품 수출액 누계는 전년 동기보다도 46%가 증가하여 9억 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WTO 가맹 문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APEC)의 각료 수뇌 회의가 2006년 11월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연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6년의 섬유 무역에는 직접 반영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무역 환경을 맞게 될 것이다.

봉제품을 주로 하는 베트남의 섬유품 수출은 2005년에 48억 6천만 달러로서 2004년의 43억 8,600만 달러보다도 11%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과의 경쟁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하여 52억 달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WTO에 아직 가맹하지 못한 베트남에게는 미국의 쿼터 제도가 남아있는데, 그 규제량을 2005년에는 다 소화하지 못하였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6%가 증가한 26억 3천만 달러에 머물렀다. 이에 대하여 EU로의 수출은 12% 증가한 8억 4천만 달러였고, 일본에는 17% 증가한 6억 2천만 달러로 크게 수출이 늘었다.

베트남은 자국산 소재가 부족하다는 종래 문제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의 최저 임금 월 93만 동(1주일 연수 후 7% 할증을 포함한 하노이, 호치민시 수준 임금)의 40% 인상이나 호치민시 중심에서 남부 지역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의 문제가 새로 불거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실ㆍ직물 등의 소재를 포함하여 일관된 섬유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ASEAN 자유 무역 지역(AFTA)이 추진되는 데 따라, 타이나 인도네시아산 소재로 생산한 베트남 봉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일본계 봉제 공장이 확대

일본으로 수출되는 어패럴의 주문이 많아지면서 수미토모(住友) 상사의 자회사는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관련된 봉제 공장의 생산 능력을 늘려 종업원 75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사쿠라 공장은 250명을 300명으로 늘렸고, 또 한 공장은 700명을 900명으로 늘리는 등 2006년에도 계속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다.

이도추(伊藤忠) 상사의 호치민 사무소에 의하면 2006년 5월 가동 예정으로 100명 규모의 공장을 증설 중이며, 수미킨(住金) 물산은 100% 출자 공장에서 다양한 봉제를 추진 중이며, 마루다카(丸高) 의류는 합판의 아동복 봉제 기업

을 설립하고 종업원 100명 규모 공장을 2006년 4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앞으로 25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NI 데이진 상사는 “나이키”를 핵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주문을 받아 봉제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량도 늘릴 계획이다. 하노이시의 블랙 포멀 봉제 공장은 2006년 5월에 가동될 것이다.

미쓰이 물산은 베트남 섬유·봉제 그룹 산하 공장에서 신사용 슈트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 2006년은 재고 조정기로서 한국계 베트남 방직 기업의 울 100% 소재로 만든 신사용 슈트를 생산하고 있다. 방적·직포·염색까지 베트남에서 생산한 소재로 봉제할 것이며, 국산 소재가 부족한 베트남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